

金斗鍾先生님을 회想하며

李 符 永

서울大醫大 神經精神科

내가 金斗鍾先生님을 처음 만나 된 것은 아직 中學生(당시는 6年制)일 때 先親의 永訣式에서였다. 金斗鍾先生은 당시 大學病院의 院長이었다. 先親과는 日本 京都 留學時節과 滿州의 農場을 경영하던 시절에 親分이 있었는데 幽明을 달리한 뒤에야 만날 수 있었다. 지금은 아마 저 幽天에서 지나간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地上의 일을 걱정하고 제실 것이다.

金斗鍾先生님은 당시 소탈하고 다정한 風貌라는 印象이었고 그 인상은 돌아가실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내가 醫科大學에 들어갔을 때는 醫史學을 주로 金斗鍾先生님의 首弟子라고 할 수 있는 李英澤先生님으로부터 배웠다. 그러나 당시 金斗鍾先生님이 醫史學教室의 主任教授로 계셨고 잔즈 함킨즈에 가서서 韓國醫學史를 마무리하시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金斗鍾先生님은 나의 姉兄 되시는 서울大醫大 名譽教授(內科) 康嘶榮先生님이 스승처럼 극진히 모시던 분이기도 했고, 史學界에서 나의 형님인 李箕永교수와도 잘 알고 계셨으므로 늘 만나면 집안 안부부터 다정하게 물어 주셨다.

1960년에 韓國巫俗의 降神의 入巫過程에 관한 碩士論文을 쓸 때 崔南善氏의 사단에 관한 글이 「啓明」誌에 실려 있다고 알려 주시고 몇가지 文獻을 醫史學教室의 남은 書架에서 꺼내서 빌려 주신 것이 學問의인 의미의 첫 만남이라고나 할까. 그 뒤에는 李英澤先生님의 신세를 졌지만 하여간 醫史學教室의 서가에는 자못 흥미있는 책들이 많았다.

金斗鍾先生님은 오래동안 大韓醫史學會의 會長을 맡으셨다. 1968년 내가 스위스 留學에서 一時歸國하였을 때 醫史學會 學術集談會에서 유럽의 精神醫學에 관해 말한 일이 있는데, 유네스코會館의 洋食部の 작은 방이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醫學界의 살아있는 元老 證人들이 준비하게 앉아 계셨다. 뒤에는 YMCA의 식당 겸 회의실에서 集談會가 열렸는데 金斗鍾先生님이 한결같이 의욕적인 發表와 論評을 하시던 기억이 난다. 언젠가 先生께서는 선생님의 著書인 「東西醫學史大綱」을 손수 두 권 가져 오셔서 하나는 가지고 다른 한 권은 同學인 趙教授에게 전해 달라고 하셨다. 歷史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後學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씨였다.

선생의 「韓國醫學史」와 「韓國醫學文化史年表」는 韓國醫史學의 獨步의 業績이다. 필요한 部分마다 조금씩 읽거나 引用했지만 全卷을 섭렵한 것은 比較的 뒷날의 이야기다. 日本서 東西洋醫學의 比較를 主題로 한 國際심포지엄에 韓國科學史學會의 도움으로 참가하고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다. 精神障礙의 病因論을 韓國의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과제였다. 金斗鍾先生께서 「韓國醫學史」를 쓰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韓國醫學의 傳統과 흐름을 남에게 傳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을 切實히 느꼈다. 동시에 우리가 金斗鍾先生님이 이룩해 놓은 것을 臺로 해서 좀더 特殊分野別로 發展시켰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너무도 이 方面의 研究가 不振했구나 하는 것도 느꼈다.

晩年에 나는 金斗鍾先生을 더 자주 뵈을 기회가 있었다. 교수들의 停年退任式에는 꼭 참석하셨고 서울大學校病院의 「病院報」와 醫學博物館의 준비를 맡고 있는 관계로 先生을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 “이제는 기억력이 다 없어졌어!” 하시는 말씀이 꼭 거짓말로만 여겨질 만큼 先生님의 氣力은

튼튼했고 과거의 回想 또한 흥미있는 것이었다. 항상 아침마다 萬步를 걸으신다고 하셨는데 人生에는 결국 끝이 있는 법인가. 多福하셨고 부지런하셨고 자상하셨던 先生은 學者의 淸貧하고 욕심없는 像의 본모습을 日常的인 몸짓에서 보여 주시면서 어느날 갑자기 道士처럼 저승으로 숨어버리셨다.

一山 金斗鍾博士와 韓國科學史學會

林 采 源

淑明女大 史學科

一山先生! 先生님에 대한 追悼의 글을 쓰자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先生님으로부터 입은 恩惠를 이 한갓 追悼의 글로써 表現하기엔 너무나 벅찬 感懷에 젖게 된다. 이 感懷를 先生님에 대한 追憶과 더불어 색여 볼까 한다.

내가 先生님과 直接 關係를 갖게 된 것은 1958년 봄쯤으로 생각된다. 당시 나는 西洋史學을 研究하는 사람으로서 서울大 醫科大學 看護學科의 文化史講義를 맡고 있었는데 先生님을 뵈을 機會를 가졌다.

先生님께서서는 나에게 科學史關係 研究를 勸獎하시면서 歐美에서는 科學史學者들이 科學專攻 出身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一般歷史學 專攻者들로부터 나오고 있으니 한번 이 方面을 研究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研究할 意慾이 있으면 醫科大學內 醫史學教室의 研究室을 하나 주겠다는 것이었다.

先生님의 이러한 提案에 나는 無條件 同意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科學史關係 冊들도 빌려 주셨다. 이리하여 나는 醫史學教室의 敎室員 아닌 敎室員 같이 되었다. 당시 醫史學教室에는 지금은 停年退職하신 李英澤先生, 그리고 韓昇璉先生이 계셨다.

그때 넓은 研究室을 하나 차지하여 研究할 수 있는 空間을 가졌다는 것은 여간 幸運이 아니었다. 先生님 敎授室은 내 房 바로 앞 방이었기 때문에 朝夕으로 뵈는 機會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先生님의 仁慈하신 性稟과 學問에 대한 그 넓은 涉獵에 큰 感銘을 받게 되고 先生님의 過去 經歷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先生님께서서는 滿州에서 크게 成功하신 內科醫師로서 큰 財産을 모으셨으나 臨床醫를 그만 두시고 奉天 滿州醫科大學 東亞醫學研究所에 들어가서 東洋醫學 및 醫學史 研究의 길로 나아가시고 醫學史 研究로써 醫學博士學位를 받으셨다. 解放後에 國立서울大學校 醫科大學이 새 出發할 때 初代 大學病院 院長職을 맡은 일이 있었던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이렇게 先生님께서서는 臨床醫에서부터 醫史學 研究로 轉換하신 稀有의 存在이시다. 또 先生님께서서는 우리나라 古活字 및 板本の 大家이신데, 이것은 滿州醫大 在職時에 그 많은 古書들을 接하는 가운데서 自然스럽게 體得하셨다는 것이다.

『서당개 3년에 風月을 읊는다.』는 말과 같이 나도 先生님을 모시고 있는 가운데 들은 것 때문에 古活字, 板本에 대한 知識을 약간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西洋史學을 專攻하는 내가 科學史 關係 論文을 몇篇 쓰게 된 것도 이때 先生님 밑에서 工夫한 덕택이라고 생각된다.

先生님께서서는 늘 科學史를 우리나라에서 認識시키고 普及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學會를 만들어